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 달콤하게, 더 달콤하게 〉

벨칸토 오페라(Bel canto)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 벨칸토 오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려한 기교를 부단한 훈련을 통해 연마한 이탈리아의 발성과 성악예술을 이야기하고, 둘째, 성악가들이 이렇게 벨칸토 스타일로 노래하는 19세기 이탈리아 낭만주의 오페라 양식을 말할 때 쓰인다.

벨칸토 오페라는 주로 세 사람의 이탈리아 출신 작곡

가에 의해 확립되고 발전했다.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가 그들이다. 이들 중 선배 작곡가인 로시니가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했다면 비슷한 연배였던 도니체티와 벨리니는 서로 경쟁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에타노 도니체티(G. Donizetti)의 대표작으로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와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베르토 데브뢰’에 이르는 여왕 3부작 같은 역사적인 소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엄하고 비극적인 정가극(正歌劇)들이 많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도니체티가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곡해 당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수많은 정가극보다 오늘날에는 그의 희극 오페라가 훨씬 더 자주 공연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작곡가 도니체티를 말할 때면 항상 따라다니는 작품이 되었다. 사랑의 묘약이란 제목 그대로 마시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마법의 약이다.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한다.

농촌 시골의 처녀, 총각인 아디나와 네모리노가 이처럼 특별한 약을 돌려싸고 벌이는 사랑스러운 ‘밀당’을 그린 이 오페라는 도니체티 특유의 서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와 더불어 희극적인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 재치가 빼어난 명작이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갑작스러운 외지인의 방문으로 시

골벽적해지고 예쁘고 도도한 매력의 아디나에게 한눈에 반해 청혼을 하는 멋쟁이 군인 벨코레 하사와 그 청혼을 수락하는 그녀를 지켜보는 순박한 농부 네모리노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네모리노는 아디나를 오랜 시간 짝사랑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그를 위해 나타난 사람은 돌카마라 박사다. 돌카마라는 예전 우리 시골 장터를 누비고 다니던 사기꾼 약장수의 전형으로, ‘박사’라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부여했음이 틀림없는 호칭이다.

떠돌이 약장수이자 돌팔이인 돌카마라가 속사포 같은 아리아로 어리숙한 시골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장면은 이 오페라에서 가장 웃음이 많이 터지는 순간이다.

돌카마라는 순진하게 다가와 사랑의 묘약도 파나고 묻는 네모리노에게 바로 그 약이 여기 있다며 싸구려 포도주를 비싼 값으로 덥석 안긴다. 돌팔이 의사 돌카마라의 가짜 묘약에 취한 네모리노에게 뜻하지 않았던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소와는 다르게 당당하고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네모리노의 모습을 달리 보기 시작한 아디나는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테너의 아리아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 ‘남몰래 흘리는 눈물(una furtiva lagrima)’이다. 이 곡의 구슬프고 애조 띤 멜로디를 들으면 비극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 같지만, 사실은 아디나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렸음을 알게 되는 네모리노의 기쁨의 아리아다. 사랑의 묘약의 약효가 확실히 발휘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카마라는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나간다. 도니체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 이야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과 익살스러운 상황설정을 덧입혀 한 편의 감미롭고 유쾌한 벨칸토 오페라로 만들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우리들에게 작곡가 도니체티가 건네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위로다.

